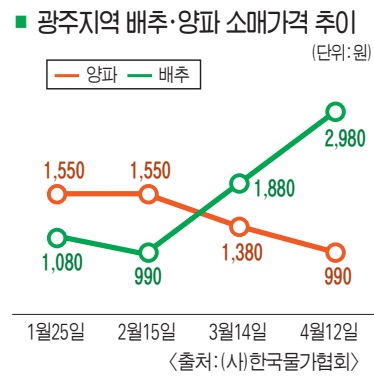


‘금배추’ 파동 다시 오나

10kg 1만3500원 석달새 5배↑... 양파는 전년비 55% 폭락

양파값은 폭락하고 배추 가격은 급등하고 있어 소비자와 생산자들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5일 (사)한국물가협회에 따르면 양파(상품 1kg)는 990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2190원에 비해 54.8%나 하락하면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양파값은 지난해 11월 1720원에서 올해 1월 1550원, 3월 1390원, 4월 들어 990원까지 떨어졌다.



양파 가격이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폭락한 상황에서 오는 5월부터 조생종 양파까지 출하하면 양파값 대폭락이 우려되고 있다.

양파 가격이 급락하는 이유는 지난 2010년 말 공급 부족으로 양파값이 고공행진을 하자 재배농가가 늘면서 저장물량은 크게 늘어난 반면 소비는 급감했기 때문이다.

양파 주산지인 무안에서 생산된 양파 20만 톤 가운데 20% 가량이 참고에 저장된 상태다.

채소 도매업을 하고 있는 김모씨는 “경기불황으로 식당 업자들이 양파 등 채소 구매를 많이 줄이고 있다”며 “소비자는 좋고 저장된 양파는 많고 여기에 새 양파까지 쏟아지면서 가격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배추 가격은 급등하고 있다. 최근 상(上)품 배추의 소매가가 포기당 5000원에 달해 ‘금(金)배추’ 파동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정도다.

2월 한파로 해남에서 주로 생산되는 월동배추의 저장상태가 악화하면서 출하물량이 줄어들었다 4월 이후 출하될 봄 배추 재배면적마저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 당분간 배춧값 상승

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광주각화도매시장 경락정보에 따르면 올 1월 월동배추(10kg)의 도매가격이 2000~3000원 수준이었던 것이 4월 현재 최고 1만3500원까지 거래됐다. 3개월 사이에 5배 가까이 뛴 셈이다.

소매가 역시 크게 상승했다. 이마트 광주점에서 지난 1~2월 배추 한 포기 가격이 980원에 팔렸던 것이 3월에는 1580원, 4월에는 3380원에 거래됐다. 두 달 사이 세 배 이상 급등했다.

배추가격이 연일 오름세를 보이자 정부는 중국산 배추를 수입하기로 결정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3일 배추 가격 상승과 물량부족으로 원료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김치업체에 중국산 배추 500t을 우선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달 하순 이후에는 봄 배추가 본격적으로 출하되면 가격이 점차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여성 친화 기업이 성과 탁월”

美 여성운동가 아이린 랭 화상토론회

“여성친화, 양성평등에 대한 좋은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이를 널리 알리고 칭찬한다면 한국사회도 점차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여성고용평등 관련 시민단체인 카탈리스트(Catalyst)의 아이린 랭(Irene Lang) 회장이 지난 13일 서울 주한 미국대사관과 광주·부산 아메리칸 코너를 연결하는 화상토론회에서 여성친화적인 기업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칭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성의 역량강화”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화상토론회에는 광주에서는 안진 전남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오미란 광주여성재단사무총장 등이 참여했다.

랭 회장은 “수많은 연구 결과 직장 내 편견을 없애고 여성들에게 높은 지위를 부여한 기업들의 성과가 좋았다”며 “여성 친화적인 기업이 혁신과 창의성이 두드러졌고 직원들의 충성



13일 오전 광주시 북구 무등도서관 2층 아메리칸 코너에서 열린 화상토론회에 참가한 사람들이 아이린 랭 카탈리스트 회장과의 대화를 나누고 있다.

도도 높았다”고 말했다.

또 랭 회장은 “미국도 40~50년 전에는 차별이 많았지만 이후 민족, 인종, 성별 등을 근거로 차별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관념이 나오면서 점차적

인 변화가 시작됐다”며 “미국과 한국의 환경이 다르겠지만 여성 개인의 노력은 물론 정부와 기업도 인식을 공유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

■ ‘근저당제도’ 대폭 개선

‘포괄근저당’ 하반기 전면금지 근저당 소멸·존속 확인 의무화

은행 근저당 제도의 부작용에 금융당국이 개선책 마련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담보 제공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거나 예상치 못한 재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제도·관행을 고치기로 했다.

근저당은 은행이 대출 담보를 위해 고객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2011년 말 은행 기계대출 잔액의 72%가 근저당 설정대출 정도로 광범위하게 쓰인다.

개정안은 신규 또는 기존대출 갹신을 막론하고 은행의 포괄근저당을 금지하도록 했다. 포괄근저당은 채무, 카드, 보증 등 발생 가능한 모든 채무를 담보로 하는 근저당이다.

이 때문에 남의 보증을 잘못 썼다 본인 집이 넘어가는 등 피해가 컸다.

기존 포괄근저당은 일반근저당으로 전환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개정 은행법이 ‘객관적으로 관리한 경우’엔 포괄근저당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한 부분 역시 구체화했다. 담보대출 등 특정 종류의 여신거래만 저당받는 한정근저당도 수술했다. 은행권이 담보 범위를 과도하게 잡아 사실상 포괄근저당과 같이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개정안은 담보여신의 종류를 서면으로 담보제공자에게 알려 선택하도록 했다.

빚을 다 갚아도 저당등기가 사라지지 않는 근저당의 특성을 이용해

말소되지 않은 등기를 다른 근저당의 유효한 등기로 사용하는 것 역시 금지된다. 은행이 근저당의 소멸·존속 여부에 대한 소비자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등기유용에 합의해야만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저당잡힌 부동산을 거래할 때 소유권만 이전하고 은행의 승낙 절차를 빠뜨리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피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는 통장·약정서·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안내문구를 추가하고 은행이 등기부상 소유주 변경을 재확인해 채무승계를 안내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넣었다.

/연합뉴스

마늘·양파 수급 안정 280억 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 사장 김재수는 마늘·양파 수급 안정자금 사업대상자 84개 업체를 선정해 총 280억원(마늘 160·양파 120)을 지원

한다.

이번 지원은 계약재배 활성화를 통해 마늘·양파수급안정과 농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대상자는 농가나 작목반 등과 파종시기에 수매약정을 하고 내년 출하시기에 마늘·양파를 수매할 계획

이 있는 법인이다. 올해부터 농협중앙회가 지원하는 회원조합 이외 법인은 공사가 지원한다.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영농농산영농조합법인 등 9개소가 마늘수급안정자금 14억원, 해남 녹색유통영농조합법인 등 29개소가 양파 수매자금 35억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금리는 무이자이며 대출기간은 3년 이내이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봄빛 질게 바르고 15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1층 화장품 매장서 직원이 한 여성고객에게 메이크업 시연을 하고 있다. 올 봄에는 핑크, 오렌지 등 화사한 컬러의 립스틱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 주간 증시 포커스

실적시즌 진입... 스마트폰 부품·정유업종 유망

북한의 로켓 발사, 유로존 재정위기 제부각, 음산만기일, 4·11 총선 등 많은 일이 있었던 한 주가 지나갔다. 게다가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까지 겹쳤지만 낙폭은 제한적 수준에 그쳤다. 단기 하락 이후 강한 반등세를 지속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지만, 의미 있는 지지선을 제차 확인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등락이 있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2000~2500 정도의 박스권이 이어지고 있고, 향후에도 이런 흐름은 좀 더 연장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대외변수로서 시장 변동성을 자극했던 요인들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일단 이와 관련된 불확실성은 일부 완화됐다.

첫째, 미국 경기지표 부진 문제의 경우 윌리엄 더틀리 뉴욕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향후 경기전망이 악화될 경우에 3차 양적완화(QE3)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힌 점은 연준리가 아직 QE3라는 카드를 버리지 않았음을 시사

하는 것으로 글로벌 경기전망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유럽도 ECB의 스페인 국제매입 가능성 시사와 함께 위기감이 일부 수그러드는 조짐이다. 스페인 정부가 의회에 새 예산안을 제출한 지난 2일 이후 스페인 국제금리가 가파르게 치솟은 바 있는데, 이는 예산안에서 올해 스페인 국내총생산(GDP)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EU가 정한 한도 60%를 크게 웃도는 79.8%로 급등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ECB의 국제매입 재개 시사는 유럽 금융시장에 심리적 안정감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중국 경제의 향방과 관련해서는 지난 1/4분기 GDP 성장률이 시장 예상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히려 기준을 인하 등 경기부양의 강도와 시기를 앞당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최근 실시 중인 소비촉진 정책들과 맞물려 긴축 완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더욱 높여줄 것으로 보인다.

넷째, 북한관련 지정학적 리스크의 경우 이번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대북제재 등 국제사회의 강경대응과 그에 따른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지만, 이번 재료 자체가 이미 노출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대외 변동성의 완화 분위기 속에서는 실적 개선세가 뚜렷한 일부 업종과 단기 가격 메리트가 발생한 업종을 축으로 한 매수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다. 스마트폰 부품주와 플랫트 기저차 관련주 등 중소형 유망주, 그리고 정유업종이 이 조건을 충족한다. 중장기적 실적 전망을 본다면 IT와 자동차 등 기존 주도 업종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박종모 <신한금융투자 광주지점장>

자연과 사람,
그리고 행복이 있는 정읍~

문화와 관광,
첨단과학도시로 탈바꿈합니다!

광주일보 since 1952